

메시지 3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삶

성경: 빌3:10, 갈2:20, 마16:24, 롬12:5, 엡4:12, 16

I.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하나님-사람의 삶은 십자가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추구하는 삶이다-마10:38, 16:24.

- A. 하나님-사람은 매일 십자가 아래 사는 사람이다-눅9:23, 14:27.
- B. 십자가가 반드시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 십자가는 골고다의 객관적인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하여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이 된 십자가이다-갈 6:14, 5:24.
- C. 십자가의 그늘 아래 있는 생활은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며 우리의 매일의 삶의 세세한 모든 것을 만진다.

II. 우리가 하나님-사람의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야 한다-빌3:10.

- A.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삶의 틀로 취하는 것이다.
 - 1.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틀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 그분의 인간 생명을 계속적으로 죽음에 넣는 체험을 말한다-요6:57, 5:19, 4:34, 5:30, 7:18, 17:4.
 - 2.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항상 자신을 거절하고 그분의 인간 생명을 죽음에 넣고 아버지의 생명으로 사신 것을 의미한다.
 - 3. 예수의 삶이 우리의 모형이며 우리는 이러한 모형의 대량 생산이 되어야 한다-벧전2:21, 롬8:29.
 - 4.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인간 생명에 대해 죽고 신성한 생명을 살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눅9:23, 요 12:25-26.
- B.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사셨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십자가 아래 있는 삶을 살았다-고전15:31, 고후4:10-12.
 - 1. 바울은 주 예수의 본을 따라 그분의 삶의 흔적, 특성을 지녔다-갈6:17.
 - 2. 이것은 예수께서 그분의 신성하게 풍성해진 인성을 이 땅에서 다시 사신 것이다! 이것은 복음서에서 사셨던 놀라운, 뛰어난, 비밀한 하나님-사람께서 사도 행전에서 그분의 많은 지체들 중 하나를 통해 계속해서 사신 것이다!(회복역사도행전 28:9의 각주 1).
- C.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틀이고 우리는 '반죽'이다.
 - 1.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고운 밀가루이신 그리스도로 만들어진 '반죽'이 되었다-레2:1, 요12:24, 고전10:17.
 - 2.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틀 속에 넣으셨고 이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도록 우리를 매일 틀 속에서 형태를 이루게 하신다-롬6:3-4.
 - 3.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형태와 같이 되는 것,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의 삶의 틀로 취하는 것이다.
- D.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틀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빌3:10, 요11:25, 엡1:19-20, 3:16, 아2:8-13.
 - 1.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능력이다-행2:24, 엡1:19-20.
 - 2.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받은 후에 이 능력을 통해 우리의 생활

의 틀이신 그분의 죽으심을 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다—빌3:10.

- a.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면 이룰수록 우리는 그분의 부활 능력을 더 알게 된다.
- b.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순서는 부활, 죽음, 부활이다—10-11절.

III.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지 않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 A.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절대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절대적으로 지지 않는 것, 즉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두지 않는 것이다—참조 18절.
- B.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지 않는 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것이다.
- C.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지 않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죽음에 넘지 않는 것이다.
- D.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지 않는 ‘두더지’를 (야심, 교만, 자기 정당화의 두더지와 함께) 처리한다면 주의 회복은 부흥될 것이다.

IV.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이다—10절, 롬12:5, 고전12:27.

- A.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이다—빌3:10.
 1. 그리스도는 신성한 경륜의 인격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길이다—고전2:2, 갈3:1.
 2. 십자가—그리스도의 죽으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길의 중심성과 우주성이다.
 3.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전환점은 십자가이다.
 4. 우리 각 사람에게에는 우리 각 사람을 제거하는 십자가의 특별한 부분이 있다—마16:24, 눅14:27.
 5. 그리스도의 연속으로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전15:31, 고후4:10-11.
- B.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러한 삶은 첫 번째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들인 많은 하나님—사람들 안에서 형상을 이루어 그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이다—갈4:19, 엡4:12, 16.
- C.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틀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계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단체적인 생활에 의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를 가질 수 있다—빌3:10, 롬12:5, 고전2:2, 12:27.
- D. 그리스도 안의 모든 믿는 이들은 신성한 생명으로 살도록 인간 생명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 참된 하나님—사람들이 되어, 인성으로부터 살아낸 신성한 속성들을 가진 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표현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가 되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야 한다—엡1:22-23, 계21:2.